

■ S-113 ■

식도 소세포암과 위선암이 병발한 원발성 중복암 1예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상계백병원 내과학교실

*장효정, 최원충, 신원창, 전태주, 오태훈, 서동대, 황진태, 김민희, 유성인, 김병규

배경: 식도에 발생하는 소세포암은 매우 드문 질환으로 1952년 Mckeown에 의해 처음 보고된 이후 세계적으로 약130예가 보고 되어있고 폐의 원발성 소세포암과 임상적 특징이 유사하며 항암제 투여가 우선이며 전이가 매우 빠르고 예후가 불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발성 중복암이란 2이상의 원발성 종양이 동시 혹은 시간을 달리하여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식사시 명치부 통증 및 체중감소로 내원한 남자 환자에서 식도의 소세포암과 위장의 선암이 동시에 발견되었으며 방사선 치료 및 경구 항암제를 투약하였던 1예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평소 특이 병력 없었으며 1년 3개월 전 시행한 위내시경에서 만성 위염이었던 87세 남자환자로 5개월 전 발생한 식사시 명치부 통증 및 체중 감소를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내시경에서 중부 식도 유경성 종괴(상부 25 cm) 및 위 분문부 궤양성 용기형 종괴가 발견되어 시행한 생검에서 각각 식도의 소세포암 및 위선암으로 진단되었다. 진단 당시 이미 대동맥 및 왼쪽 되돌이 후두신경, 다발성 림프절 전이가 의심되었다. 식도 소세포 암에 대하여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위선암 에 대하여 경구 항암제 (TS-1)를 투약하였다. 방사선치료 2주째 3060 Gy조사후 시행한 위내시경에서 경계가 상승되어 있는 궤양 형태로 변형되었으며 생검에서 급,만성 식도염 소견으로 완치로 판단하였다. 한달 경과 후 연하곤란 있어 시행한 위내시경에서 중부식도(상부 28~30 cm)의 fungating mass 발견되었으며 생검 결과 식도 소세포암의 재발이었으며 시행한 복부 CT에서 간전이를 동반하고 있었다. 이후 한 달여간 방사선 치료 지속하였으나 전신 컨디션 저하보여 3780Gy로 치료 종료 하였으며 이후 TS-1 stop하였다. **결론:** 식도 소세포암 및 위선암의 원발성 중복암을 진단 받았던 환자로 식도 소세포암에 대하여 방사선 치료 및 위선암에 대하여 경구 항암제 (TS-1)를 투약하였던 증례로 그 예가 드물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 S-114 ■

조기 하인두암의 치료로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을 시행한 1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김승한, 최원재, 최정원, 박자인, 오주연, 문지미, 최세호, 김기현, 김우현, 김태형, 이범재, 김재선, 박영태, 박종재

배경: 하인두암은 전체 두경부암의 약 4%로 빈도는 비교적 낮지만 대부분의 경우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되기 때문에 두경부암 중 예후가 가장 나쁘다. 근치적 수술 및 수술 후 방사선 치료 등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5년 생존율은 20~50% 미만으로 좋지 않고, 치료 후 발성 및 연하 기능의 장애가 생겨 좀 더 보존적인 치료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이어졌다. 그러나 최근 내시경적 진단법이 발전하여 특히 일본에서는 하인두암을 조기에 발견하게 되었고, 내시경적인 치료를 시도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조기 하인두암에 대해 내시경 점막절제술을 시행하거나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로 성공적으로 치료한 결과들을 발표하였다. 저자들은 진행성 식도암으로 검사 중 조기 하인두암이 발견되어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로 성공적으로 치료한 경험 1예를 보고한다. **증례:** 68세 남자 환자로 검진목적으로 시행한 상부 위내시경에서 진행성 식도암 이 발견되어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 본원에 내원하였다. 본원에서 상부 위내시경을 시행하면서 협대역 영상 내시경을 같이 시행하였다. 좌측 하인두 부위에 표면의 미세혈관상이 증가한 병변이 발견되어 조직검사를 시행하였고, 편평상피암으로 진단되었다. 이에 식도암의 근치적 치료를 하기 전 하인두암에 대해서 전신마취하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을 시행하였고, 시술 중 출혈 및 천공의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병변을 거상시키기 위해 점막하 주입을 하면서 후두부위 부종이 발생하여 기관삽관을 수술 후 1일째까지 유지하였고 후두부위 부종이 호전되면서 기관 내관 발관을 하였다. 이 후 출혈이나 천공, 연하곤란의 합병증도 보이지 않았고 추적 검사한 상부 위내시경에서 좌측 하인 두부에 궤양이 생기며 호전되었다. 조직검사 결과는 1×0.7×0.1 cm의 점막에 국한된 편평상피암이었다. 이 후 진행성 식도암에 대해 근치적 치료를 위해 수술을 하였다.